

로마자 표기법의 성격

이익섭

국립국어연구원 원장

1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표기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그것이다. 앞의 둘은 비록 그 성격이 다르나 결국은 한글을 그 표기 수단으로 하는 것임에 반해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표기하는 것이긴 하나 남의 글자인 로마자로¹⁾ 표기된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별된

1) 로마자(Roman alphabet)는 라틴 문자(Latin alphabet)라고도 하는 것으로 영어를 비롯하여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 여러 나라 말의 표기에 쓰이는(대략 60여 개국에서 6억이 넘는 사람들이 쓰는 것으로 알려진) 문자를 가리킨다. 한글이나 한자, 또는 일본의 가나와 같은, 로마자 이외의 글자를 이 로마자로 바꾸어 표기하는 일을 '로마자화'(romanization)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흔히 영어 알파벳이라 부르는 수가 많은데 정확한 용법은 아니다. 흔히 "네 이름을 영어로는 어떻게 쓰지?"라는 식으로 말할 때가 많다. 사실 '로마자'란 용어가 생소하여 "네 이름을 로마자로는 어떻게 쓰니?"로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로마자로 표기된 이름이

다. 그 용도에 있어서도 앞의 둘은 우리 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우리 나라 사람을 위해 만든 표기법인 것과 달리 로마자 표기법은 외국인을 위해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하고 말기에는 로마자 표기법의 성격은 특이한 면이 있다. 로마자 표기법이 외국인을 위한 표기법이라고 할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외국인을 위해야 하는 것일까. 아주 쉽고 분명할 것 같은 이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은 듯하다. 그리고 의외로 이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문제를 좀더 선명히 하기 위해 먼저 외래어 표기법의 특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외래어 표기법은 앞에서 말하였듯이 우리 나라 사람을 위한 표기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표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음은 비슷한 국어 발음으로 바꾸어 표기한다. 'foul'을 '파울'이라 하고 'violin'을 '바이올린'이라 하는 것이나 'thrill'을 '스릴'로 적는 것이 다 그 때문이다. 'lighter'의 'l'과 'racket'의 'r'을 구별하지 않고 다 '르'를 써서 각각 '라이터'와 '라켓'으로 표기하고, 'opera'의 'o'와 'oven'의 'o'가 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다른 발음 (즉 앞의 것은 [a] 또는 [ɔ]음, 뒤의 것은 [ɔ]음)인데도 다같이 '오'를 써서 각각 '오페라'와 '오븐'으로 표기하는 것도 다 같은 이치에서이다.

로마자 표기법은 언뜻 생각하면 외래어 표기법을 그대로 뒤집어 놓은 형태일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외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 마치 외래어 표기법이 우리 나라

영어 이름은 아니며, 그것이 영어 스펠링이 아닌 것은 더욱 분명하다. 참고로 한 언어학 사전에서 로마자에 대한 정의를 옮겨 실는다.

Roman alphabet An alphabetical system derived from that used in ancient Rome for Latin, and the source of most Western alphabets: also called the Latin alphabet. The use of this alphabet to transcribe the signs of non-Latin writing systems is called romanization. (Crystal 1992: 335)

사람, 우리 나라 말 본위로 만들어지듯이, 로마자 표기법은 그 사람들 본위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말에서는 ‘딸’과 ‘탈’에서처럼 ‘ㄷ’음과 ‘ㅌ’음이 변별되더라도 그것을 구분 못하는 외국인에게는 그것을 굳이 구분해 표기해 줄 필요가 없고, ‘스님’도 ‘snack’이나 ‘spring’과 같은 그쪽 방식에 따라 ‘snim’이라고 표기해 주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해 봄직하다.

그러나 이 생각은 옳지 않다. 그동안의 어떤 로마자 표기법도 이런 정신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다. 로마자 표기법은 외래어 표기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래어 표기법은 일단 자국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상태를 표기하는 표기 체계인 데 반해 로마자 표기법은 외국어 상태를 그 모습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표기 체계인 것이다. 가령 미국 사람들이 한국어의 ‘달, 딸, 탈’을 영어의 일원으로, 즉 차용어나 외래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자기들 문자로 표기한다면 세 개 모두를 ‘tal’ 하나로 표기하여도 그만일 것이며, ‘스님’도 ‘snim’이라 하면 그야말로 똑떨어지는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로마자 표기법은 ‘ㄷ, ㄸ, ㅌ’를 구별해 주어야 하고 ‘스님’의 ‘-’도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내 주어야 한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영화 배우를 ‘스타’라 한다”고 할 때의 ‘스타’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는 ‘star’라 하면 안 되고 ‘süt’a’ (또는 ‘suta’) 식으로 해야 한다. ‘필름’도 로마자로 바꿀 때는 ‘film’으로 적지 못하고 ‘p’illüm’식으로 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²⁾

2) 일본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film’을 ‘hwirumu’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일본어의 경우 ‘DDT’를 ‘d’ii-d’ii-t’ii’ 또는 ‘de’i-de’i-te’i’식으로 표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 글자에는 ‘디/티’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어 ‘테/테’를 나타내는 글자에 ‘이’를 나타내는 글자(위첨자)를 복합시켜 ‘디/티’를 표기하는데 앞의 표기는 바로 그 일본어 철자를 로마자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Martin 1975:15 참조). 단순히 서양 사람들에게 편한 방식을 취한다면 ‘DDT’면 그만일 것을 그 번거로움을 떨면서까지 이쪽의 표기 체계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의 흥미를 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로마자 표기법의 정신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로마자 표기법이 영어 스펠링일 수는 없는 것이다.³⁾ 달리 말하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영어의 외래어 표기법이 아니다.

이의 이해를 위해 <외국어의 한글 표기법>을 상정해 보기로 하자. 과거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근래 심심치 않게 한글 자모 28자 중 현재 쓰이지 않고 있는 ‘ㆁ, ㆁ’ 등을 다시 살려 써서 영어 등의 [ɲ]음 (또는 [v]음)이나 [tɕ]음 (즉 [ʈ], [tɕ]음) 따위를 적는 데 활용하자는 제안이 제기되는 수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늘 어떤 오해와 혼동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글은 닭 소리며 바람 소리 등 못 적는 것이 없는 우수한 글자인데 [ɲ]음이나 [tɕ]음쯤 못 적는대서야 말이 되느냐와 같은 오해가 그 하나다. 어느 문자나 자기 나라 말을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이상적인 문자인데 엉뚱한 허욕을 부리는 것이며, 닭 소리 바람 소리라는 것도 ‘꼬끼오’면 ‘꼬끼오’, ‘쌩쌩’이면 ‘쌩쌩’과 같이 일단 인간의 말로 바꾸어 인식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연의 소리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일 수는 없는데 엉뚱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와 혼동을 떠나 ‘ㆁ, ㆁ’(또는 ‘ㆁ’)를 써서 [ɲ]음과 [tɕ]음 따위를 표기할 수는 있을 것이며, 또 ‘ㄹ’과 ‘ㄹ’로써 [l]음과 [r]음을 구별해 적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렇게 되면 그것은 ‘외국어’의 표기법이 아닌 ‘외래어’의 표기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외국어는 통상 그 나라 글자로 읽고 있지만, 만일 로마자나 일본 글자 등 외국 글자를 읽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한글로 그 외국어를 표기해 주되 그것을 그 외국어의 체계를 살려 적는 방식을 취한다면, 그리고 만일 그 외국어가 영어라면 그것은 곧 <영어의 한글 표기법>이 될 것이다.

3) 그런데도 우리는 ‘박(朴)’이나 ‘문(文)’을 ‘Park, Moon’ 등으로 되도록이면 영어 단어로 바꾸어 적으려 한다. ‘영’이란 음절이 들어간 것이면 거의가 ‘young’으로 표기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다. 로마자 표기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이러한 발상이 우리 로마자 표기법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그때에는 <외래어 표기법>이나 우리말 표기에는 필요하지 않은 ‘병, △, 링’ 등의 글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며, 훈민정음 창제 후 한동안 중국 한자음의 표기에 사용되었던 ‘ㅅ, ㅈ, ㅊ’나 ‘ㅅ, ㅈ, ㅊ’ 따위의 글자도 필요하게 될지 모른다. 또는 이런 특수 문자를 쓸 수 없다면 ‘radio’의 ‘r’에는 ‘ㄹ’, ‘lighter’의 ‘l’에는 쌍리울을 쓰는 등 오늘날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겪지 않아도 되는 갖가지 고초를 겪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같은 한글로 표기되더라도 외래어 표기법과 외국어 표기법이 따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에는 눈을 돌려 미국쪽의 상황을 상정해 보기로 하자. 그쪽에서도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외래어에는 ‘김치’나 ‘불고기’와 같은 한국어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자기들 글자 (즉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하느냐, ‘kimchi, pulgogi’ 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느냐를 정해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에는 그야말로 ‘탈’과 ‘딸’을 다같이 ‘tal’로 표기해도 그만일 것이며, ‘스님’을 ‘snim’이라 해도 그만일 것이다. 영어화한 외래어를 대상으로 하는 외래어 표기법이기에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자기 국민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이때는 한글을 직접 배우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영어를 영어 스펠링을 통해 배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글 활자가 없다가 이런저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로마자로 한국어를 표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⁴⁾ 우리가 영어 스펠링을 한글로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비

4) 실제로 미국에서 일본어나 중국어를, 그 나라 문자를 전혀 표출하지 않고 로마자로만 된 교재로 가르치는 일이 많다. 우리말 교재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초기 선교사들이 저술한 우리말 문법서를 비롯하여 근래 외국인 및 우리 나라 학자들에 의해 저술된 한국어 문법서들이 한글을 이용하지 않고 로마자로만 되어 있는 것이 많다. 그리고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한 (결국 한글이 한 자도 안 쓰인) 한영사전 따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사전들이 차츰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슷한 것이다. 그러면 '달, 딸, 탈' 또는 '불, 풀, 뿔'을 어떻게든 구별해 표기해 주어야 하고 '스님'이나 '그림자' 등의 'ㅡ'를 어떤 방식으로든 표기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자면 로마자 26자만으로는 불가능하여 마치 우리가 '△'나 'ㄹ' 등의 비상 수단을 동원하여야 하듯이 'p', t', k"에서와 같은, 또는 'ㅇ'나 'ㅈ'에서와 같은 특수부호(diacritic)를 동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체계는 곧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일 것이며, 우리의 로마자 표기법은 바로 이와 똑같은 성격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일이 성립할 것이다. 외국인들이여, 한국어를 알려면 한글을 배워라. 미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우선 당신들 글자로 한국어를 적어 주노라. 좀 불편하겠지만 몇 시간만 착실히 배우면 적어도 비슷한 발음은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코 당신들의 스펠링이 아니다. 첫눈에 바로 발음을 알 수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 세상에 그런 표기법은 없느니라. 여기는 여기대로 규칙이 있으니 그것을 익히도록 하라.

2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가지 불평이 많았다. 무척 많은 체계가 제안되었고 그 중 어떤 것은 꽤 널리 채택되기도 하였으나 그 어느것도 만족을 주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한 방식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계속 새 안이 제안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불평 중에는 부당한 불평도 많다. 로마자 표기법의 성격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불평이 많았던 것이다.

로마자 표기법은 어차피 불편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한글로 외국어를 표기해 놓으면 '병, 룡, △' 등의 별별 비상 수단을 다 써 봐도 어차피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인 것과 같다. "나랏 말싸미 中國에 달아 사뭇디 아니할썻"라고 했듯이 남의 말을 다른 나라 글자로 적는다는 것은 마치 맞지 않은 신에 억지로 발은 맞추는 것

과 같이 어쩔 수 없이 불편하기 마련이다. 불평을 하여도 이 근원적인 한계를 넘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근원적인 한계는 따져보면 불수록 그 골이 깊다. ‘-’와 같은 모음은 아예 없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글자로도 이 음을 나타내 줄 방도가 없다. ‘ü’와 같은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그 점에서 어찌면 거의 유일한 길이라 할 것이다.⁵⁾ 그런데 ‘ü’와 같은 특수문자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를 나타내는 문자라는 것을 바로 알 리도 없지만, 비록 그것을 바로 배운다 해도 자기들 말에 없는 ‘-’음을 정확히 발음하는 일은 쉬울 리가 없다. 우리가 몇 년씩 영어를 배우고도 어디 [th]음 하나 제대로 내며 ‘opera’의 ‘o’와 ‘oven’의 ‘o’를 구별할 염두나 내는가. 근원적인 한계는 우선 여기에 있다.

이 사정은 ‘ɟ, ɛ, ɸ’ 등을 구별할 때도 비슷하다. 세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가

5) 참고로 터키의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터키는 1928년 그때까지 쓰던 아랍자를 로마자로 대체하면서 ‘ç’에서와 같은 세디유(cedilla)를 비롯하여 ‘ö’ 나 ‘ü’에서와 같은 반달표(breve) 및 ‘ö’에서와 같은 움라우트(umlaut), ‘ä’에서와 같은 circumflex 등의 특수 부호를 최대한 활용하여 로마자의 한계를 극복하였던 것이다. 반복하지만 특수 부호의 이용은 로마자의 한계를 해결하는 가장 합당한 방안일 것이다. 다만 우리 모음의 경우 특수 부호가 반드시 ‘ü’에서처럼 반달표여야 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엄격하게 따지면, 반달표는 종래의 IPA(1951년판 및 1979년판)에서는 비음절음(non-syllabic)을 나타내는 기호였고, 새 IPA(1989년판)에서는 초단음(extra-short)을 나타내는(결국 이중모음의 한 요소를 나타내는) 기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래 이 특수 부호의 사용이 큰 저항을 받고 있다. 낱고 뛰는 컴퓨터도 그것을 귀찮아한다는 것 때문이다. 우리가 만든 그 기계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터키 등에서처럼 특수 부호를 위한 자판을 개발하여 불편없이 쓰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가 많아 호환에는 여전히 제약을 주고 있어 근래에 들어 로마자 표기법에서 특수 부호 없애기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어 로마자 표기법의 개정 논의도 바로 이 특수 부호에서 촉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t'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디에 배당하고 나면 나머지 두 소리를 구별해 표기하려면 역시 비상 수단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령 'tt'을 'tt'로 나타내 놓고 보면 눈에도 설 뿐 아니라 그것이 'tt'음을 나타내는 글자임을 교육시킨다 해도 그들에게 된소리를 제대로 발음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데다가 로마자는 우리 한글과 달리 한 글자가 한 가지 음으로 읽히지 않는다는 고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한글의 'ㄴ'은 늘 일정하게 읽히는 편이다. 그러나 영어의 'a'는 전혀 그렇지 않다. 'apple, art, April, America, all, Aesop, author' 등 쉽게 몇 가지만 골라 보아도 'a'의 대표음이 무엇인지 도무지 짐작할 길이 없다. 역으로 국어의 'ㄴ'에 가까운 'ㅎ'음으로 실현되는 글자를 보면 이것도 가관이다. 어느 한 글자가 아니라 'ago, over, sanity, company, focus'에서 보듯이 'a, e, i, o, u' 등의 여러 글자에 걸쳐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국어의 'ㄴ'이 그쪽에 있는 음이라 하더라도 이들 글자 중 어느 글자를 골라 써야 할지는 역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근원적인 한계는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서양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또는 우리 상호(商號)를 제대로 발음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미국에 가 있는 교포들한테서 특히 이러한 불평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불평들은 대개 우리 로마자 표기법의 불완전함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진다. 로마자 표기법이 엉터리여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우리는 'Christmas, church, Chicago'의 'ch' 발음이 다 달라도 불평 한 마디 안 하고 부지런히 배워 잘 따라가지 않는가. 'San Jose'나 'Jimenez'의 'j'의 발음을 잘못 했다가도 고쳐 받고 이내 'ㅎ'음으로 발음하게 되고, 'Wagner'가 독일 사람이라면 '와그너'가 아니라 '바그너'로 불러 주어야 한다는 것도 배워서 그 나라 규칙을 공손히 따르지 않는가. 어디 그뿐인가. 'knife, wright, island, psalm' 등처럼 아예 소리도 없는 철자가 들어 있는 어처구니 없는 단어들까지 열심히 배워 척척 바로 발음하지 않는가. 저들이 우리 로마자를 잘못 발음했을 때,

우리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 것대로의 독법(讀法)이 따로 있음을 일깨워 주고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⁶⁾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로마자 표기법은 영어 스펠링이 아니다. 그것을 저들의 스펠링으로 알고 잘못 읽는 것은 그들의 게으름이요 그들의 무성의다. 한 번도 따로 배우지 않은 채 척척 바로 발음할 수 있는 표기법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도시(都示) 나는 외국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욕심이라 생각한다. 우리말도 제법 잘 하고 한글도 잘 읽는 외국 사람들조차 '우리 사람이'식의 이상한 발음을 하는 현실을 우리는 누구나 경험해 알고 있다. 또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우리는 그토록 오래 영어를 공부하고도 가령 Henry David Thoreau(1817-62)의 발음을 여간해서는 저

6) 한 예로 'Gang'을 '갱'으로 발음하는 사람에게 우리 로마자 표기법의 독법으로는 '강'임을 알려 주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래 보면 이내 잘 따른다. 그리고 배려가 깊은 사람은 먼저 어떻게 발음하느냐고 물어 오기도 한다.) 로마자 표기법이 나라마다 독자적인 독법이 따로 있다는 것에 대해 이제 인식이 좀 바로잡혔으면 한다. 'Japan'은 '쥬팬' 또는 '저팬' 식으로(즉 영어 식으로) 읽으면서 'Toyota'나 'Hakone'는 '도요타'나 '하코네'로 바로 읽는 것도 일본어 로마자 독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배워서인 것이다. 영어 'bet'의 't'는 파열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지만(그리고 'butler'의 't'나 'madam'의 'm'은 늘 안 터트리고 불파음으로 발음해야 되지만) 프랑스어를 읽을 때는 'tête'나 'Madame'의 마지막 자음을 늘 파열시켜야 한다는 것을 배워 그렇게 실행하듯이 동일한 로마자라도 터키어 로마자는 그것대로(가령 'c'는 영어의 'j'음으로 읽어야 하고, 'p, t, k'는 음절말에서도 파열시켜야 한다), 중국어 표기법은 그것대로(가령 'e'는 우리의 '이'음, 'q'는 우리의 '츠'음처럼 읽어야 한다), 또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은 그것대로 독법이 따로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무엇보다도 음절말의 자음 글자를 파열시켜서는 안 된다는, 즉 불파음으로 실현시켜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그것을 따로 배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또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손을 놓고 제대로 읽어 줄 때를 기다리는 것이나, 로마자 표기법을 잘 만들면 하나도 안 배우고도 척척 바로 읽어 줄 것이라고 믿는 일이나 모두 옳은 생각이 아닐 것이다.

사람들 귀에 만족스럽게 (아니 만족스럽게는커녕 알아듣게도) 발음해 주지 못하지 않는가. 물론 좀더 좋은 표기법이 좀더 가까운 발음을 유도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Chu Ŭnsön'이나 'Ju Eunseon'보다는 '주은선'을 좀더 우리 음에 가깝게 이끌어낼 표기법이 있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자기 이름을 바로 발음해 주지 않는 일은 많은 경우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더욱이 우리 로마자 표기법에 서툴기만 한 그들이 아닌가.

로마자 표기법이 어찌다가 저 사람들의 단어로 이상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꼴과 일치하게 되는 것을 가지고 야단을 떨며, 그것이 마치 우리 로마자 표기법의 잘못된 양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독립문'을 'Dogribmun'으로 표기해 놓으면 '개'(dog)의 '갈비'(rib)가 '된다고 야단을 떠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야말로 어찌다 있는 우연의 일치이며, 그것은 또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스개로 '다나까'라는 일본 이름을 '고기를 다 낚아'와 연결시켜 세계에서 낚시를 가장 잘 하는 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Noam Chomsky를 '츰스키눔', '츰눔'이라 하며 웃기도 한다. 어느 분의 영어 이름 George Baig을 두고 뭐가 백 개라는 이상한 농담까지 하는 수도 있다. 한 언어의 발음을 다른 나라 말로 바꾸어 놓고 보면 이상한 단어가 되는 수가 있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얼마씩은 있게 마련일 것이다. 그리고 정말 딱한 경우는 그것 때문에 어떤 비상 조치를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예외적인 현상 때문에 어느 로마자 표기법 체계 전반을 비판하는 자료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⁷⁾

7)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우리의 인명(人名)이 서양 사람에게는 어차피 이상한 이름으로 보이기 쉽다는 것도 지적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우리는 음절들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얼마든지 새 이름을 만든다. 이것이 기존의 어떤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그래서 Julia나 Tom이니 하는 동일한 이름투성이인) 저들의 감각으로 보면 서툴고 괴이하기 마련이다. 미국 교포들이 대부분 이름만은 굳이 그들 이름을 따 쓰는 것도 이

로마자 표기법은 어차피 불편한 표기법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바로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완벽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그동안 부당한 많은 불평을 낳았다고 생각한다. 부당한 불평은 결코 로마자 표기법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3

로마자 표기법에서 줄곧 쟁점이 되어 온 것의 하나는, 우리의 로마자 표기법을 이른바 전자법(轉字法, transliteration)으로 할 것이냐 전사법(轉寫法, transcription)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앞의 것은 한글 표기법에서 같은 글자로 표기된 것은 늘 동일한 로마자로 대당되게 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표기법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바보'를 'pabo', '감기'를 'kamgi'로, 또는 '독립문'을 'Tongnimmun', '만리'를 'malli'로 표기하는 식으로 현실 발음을 표기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의 표기법이다.

이 두 가지 방식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기법에서 발음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로마자 표기법에서뿐 아니라 어느 나라 표기법에서나 쟁점이 되는 사항이다. 모두 입장일단이 있어 반드시 어느 한쪽을 선택 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업스니, 업더라'쪽을 택할 것이냐 '없으니, 없더라'쪽을 택할 것인가를 두고 훈민정음 창제 직후부터 오랫동안 시련을 겪어 온 바 있다. "소리대로 적는" '업스니, 업더라'의 방식, 이른바 음소적 표기법(音素的表記法)이 꽤 오래 채택되었던 것을 보면 그것은 그것대로 장점이 있겠고, 오늘날

때문인데, 우리 고유명사가 이상한 의미를 연상시키거나 아릇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좀더 근원적인 문제이지 어떤 한 방식의 로마자 표기법 탓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방식을 버리고 “어법에 맞도록 적는” ‘없으니, 없더라’의 방식, 즉 형태적 표기법(形態的 表記法)을 택하여 불편 없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이것대로 장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앞의 방식은 발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점에서 특장(特長)을 보이는 방식이며, 뒤엎것은 ‘없’이란 모습을 시각적으로 고정시킴으로써 그만큼 의미 전달을 빨리 해 주는 데 효능을 발휘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어느쪽 하나를 택한다는 것은 결국 이들 중 어떤 장점은 취하면서 동시에 다른 쪽 장점은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느쪽 장점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를 결정하는 일일 것이다. 표기법을 두고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 필자는 다른 자리에서 후자의 방식이 더 이상적인 표기법임을 논한 바 있다.⁸⁾ ‘운는다, 우서요, 끈넙도’가 ‘웃는다, 웃어요, 꽃잎도’보다 발음을 알기에는 더 나은 표기 방식이겠으나 그것들이 ‘웃고, 웃으면, 웃어요, 웃음, 꽃이, 꽃으로, 꽃잎에서’ 등과 뿌리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데는 더 불편한 방식임이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쪽 불편이 더 큰가. ‘웃는다, 웃어요, 꽃잎도’가 ‘운는다, 우서요, 끈넙도’에 비해 발음을 알기에 불편하다고 해도 그 불편은 사실 별것이 아니다. 그 별것이 아닌 불편을 감수하고 의미 전달에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인 ‘웃는다, 웃어요, 꽃잎도’ 쪽을 택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주장의 요지였다.

일반 언중(言衆)들은 매우 몽매한 줄로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러나 그들의 의식 속에는 ‘웃’이며 ‘꽃’이며 ‘잎’에 대한 꽤 정확한 분석적 지식이 머리속

8) 이익섭(1971, 1992)를 참조. 이 주장의 이론적 배경은 Chomsky and Halle(1968), Vachek(1989), Coulmas(1989) 등이었는데 여기서 상론(詳論)할 겨를이 없다. 다만 종래에는 음소적 표기법에 대한 옹호가 압도적이던 것이 근래 이쪽 방면으로 크게 방향이 바뀌었음만 강조해 두고자 한다.

에 내장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⁹⁾ '웃는다, 웃어요, 꽃잎'으로 적어 시각적으로 '웃'은 늘 '웃'의 모양으로, '꽃'은 늘 '꽃'의 형태로 고정시켜 주는 방식이 우리에게 의미 전달을 더 쉽게 해 주는 것은 바로 그 표기 방식이 우리 머리 속에 저장된 이 단어들에 대한 지식과 일치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이 결국 오늘날 우리가 채택해 쓰고 있는 방향으로 발전(이것은 분명히 발전이었다)된 것도 선대(先代)의 학자들 및 언중이 은연중 이러한 원리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로마자 표기법은 그 용도가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 표기법에 적용되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¹⁰⁾ 그러나 가령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 나라에 잠시 들려 가는 사람들이 거리 간판을 읽을 때 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로마자 표기법의 용도를 아주 좁게 잡는다면 몰라도 이 표기법에 적용되는 원리는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1984)이나 이의 모태가 된 머큐-

9) 이런 근거는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을 보면 쉽게 찾아지는 듯하다. '먹이지 마. 벗으자' 같은 말을 새로 말을 배우는 두세 살짜리들의 말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머리 속에 이미 '먹-', '벗-'과 같은 어간이 분석되어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만일 '먹-'이 들어간 '먹보, 먹거리'류의 새 단어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다, 먹어' 등과 연관되는 단어라는 것을 쉽게 아는 것도 언중들이 이들 형태소에 대한 분석력이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Caplan(1992)를 참조할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형태음소적 표기법이 기저형(基底形, underlying form)을 반영해 줌으로써 그만큼 좋은 표기법이라고 한 Chomsky and Halle(1968)을 참조할 것.

10) 형태적 표기법의 우월성은 흔히 숙달된 독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더 잘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로마자 표기법을 어떤 독자를 상정하고 만들 것인가에 따라 그 선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숙달된 독자는 아니더라도 한 두번 간판 정도만 읽고 말 독자보다는 한국어를 자주 말할 독자를 염두에 둔다는 것을 앞에서 밝힌 바 있다.

라이샤워(McCune-Reischauer) 표기법(1939)을 보면, '먹고, 먹으니, 먹는다'의 세 'ㄱ'이 'mökko, mögüni, möngnūnda'에서 보듯 각각 'k, g, ng'로 달리 표기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어간 '먹-'이 'mök-, mög-, möng-'과 같은 세 다른 모습으로 표기된다. '멍는다'와 같은 발음 현상뿐 아니라 무성음이던 'ㄱ'이 유성음 사이에서 [g]과 같은 유성음으로 바뀌는 현상까지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표음주의 방식이 간판이나 읽고 말 사람이라면 몰라도 '먹고, 먹으면, 먹는다'가 한 단어의 활용형이라는 정도의 초보적인 우리말 지식을 바로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조차 불편을 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라 하겠다. '신랑, 신부, 신혼'의 '신'이다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그들도 결국은 배워야 할 지식일 것이며, 그때 '신랑'의 '신'이 '실'로 표기되는 방식은 역시 이 지식 습득에 방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유성음화의 반영은, 흔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나, 따져보면 로마자 표기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방식이다. 가령 '바보'를 'pabo'로 표기하는데 이때 어두의 'ㅂ'이 어중의 'ㅂ'과 다른 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은 한국 사람들이 도저히 알아차릴 수 없는 현상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한국어를 한국어 고유의 체계로 표기해 주는 것이 로마자 표기의 정신인데 한국인은 모르고 외국인만 구별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이미 원론적으로 옳지 않다.¹¹⁾ 그런 데다가 로마자 표기는 대부분 한국 사람이 써서 외국 사람들에게 내보내는 방식일 텐데 누가 일일이 이것을 구별해 적을 것인가. '사도 가령 '이순신'의 경우 앞에 있는 'ㅅ'은 's'로, 뒤의 'ㅅ'은 (즉 'ㅣ' 앞에 있는 'ㅅ'은) 'sh'로 표기한다. 어디 그뿐인가. 현행 표기는 '학문(學問)'과 '항문(肛門)'을 'hangmun' 하나로 적게 되어 있다.

11) 어떤 표기법이나 환경에 따라 자동적으로 달라지는 이음(異音; allophone)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로마자 표기법이 우리말의 체계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의 음소 구실을 못하는 이음들을 자기들 귀에 맞추어 표기에 반영하려는 것은 목표 설정부터 잘못된 결과일 것이다.

두 다른 단어가 '항문' 하나로 되어 버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의미 분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사소한 음성적 차이는 철저히 구별하면서 확실히 구별해 주어야 할 중요한 음소적 차이는 오히려 뭉개 버리고 있는 것이다. 본말이 전도된 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¹²⁾

문자나 표기법은 소리로 환원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눈을 통해 뜻을 구별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주된 기능일 수 있다. 많은 경우 글자는 귀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위해 있으며, 소리를 위해 있기보다는 뜻을 위해 있다.¹³⁾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마치 한국어는 소리만 있고 뜻은 없는 언어인 듯이 만들어져 있다. 뜻의 구별을 희생하면서까지 소리에 충실한 표기법이 결코 좋은 표기법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할 것이다.

12) 사소한 것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하나 더 지적한다면 된소리화 현상에 대한 것이다. 발음에 충실하려면 '울진, 팔당'이 각각 [울쩨], [팔땡]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 정보는 '팔공산, 칠보' 등에서는 된소리화 현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바보'의 두번째 '바'가 자동적으로 유성음화하는 것보다 국어로서는 훨씬 중요한 정보인 것이다. 그런데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이런 것은 오히려 무시한다. 한국어를 한국어로 인정하려는, 그 독자성을 인정해 주려는 자세가 그만큼 결여되어 있는 다른 한 예로 보아 좋을 듯하다.

여기서 떠오르는 것 하나는 일본 학자 小倉進平이 우리 방언을 조사하면서 바로 이런 방식의 轉寫를 했던 일이다. 저들의 귀에 유성음은 잘 들리니까 자동적이어서 하찮은 유성음화 현상은 열심히 기록하면서 된소리화 현상은 무시하였던 것이다. 그로써 국어 방언의 중요한 특징이 포착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한때 일부 우리 나라 방언학자들은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르기도 하였다. 이제 다시 미국 학자의 손에 만들어진 표기법 때문에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기구한 우리 역사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13) 최근까지도 이 점을 잘못 알고 있는,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글자가 소리로 바뀐 청각영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믿는 학자들이 많다. 그것이 표기법에 관한 논의를 늘 구렁텅이로 몰아넣곤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익섭(1992) 제9장을 참조할 것.

로마자 표기법이 전자법이 되든 전사법이 되든 현실적으로 철저히 어느 한 방식으로 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느 한 방향을 잡는다면 전자법쪽을 택하는 것이 표기법 일반의 원리에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더 타당한 방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더욱이 이제 우리는 컴퓨터 시대를 맞고 있고, 또 국제화 시대에 와 있다. 로마자 표기법이 우리가 저쪽으로 보낼 때만 쓰이지 않고, 저쪽에서 우리 책을 주문할 때든 다른 무역품을 주문할 때 등에도 수시로 쓰일 것이다. 그럴 때 아주 간단한 예로 '독립(獨立) 산업'과 '동립(東立) 산업'의 '독립'과 '동립'이 다같이 'Tongnip'으로 찍혀 온다면 혼란을 일으킬 것이 뻔하다. '문리(文理)'와 '물리(物理)'가 다같이 'mulli'로 표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쉽게 우리 한글로 변환될 수 있는 쪽이 더 편리할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이제 한글 자리에 로마자가 쓰인 한국어 학습서가 점차 늘어날 것이다. 앞에서 이미 시사하였지만 전자법이 참으로 그 진가(眞價)를 발휘하게 되는 것은 역시 이러한 교재를 통하여 우리말 구조를 제대로 배우고자 할 때일 것이다. 어느 경우든 우리의 것이 널리 알려질 기회가 많아진 시대를 맞아 전자법의 필요성은 그만큼 더 커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우리 나라 로마자 표기법에서 'ㄱ, ㄷ, ㅂ' 등을 'k, t, p' 등의 무성음으로 표기하느냐 'g, d, b' 등의 유성음으로 표기하느냐도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왔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기에서는 서양 사람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 현격히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 즉 서양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앞쪽 방식을 택하는 경향을 보여 온데 반하여 한국 사람들은 대개 후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두의 경우를 두고 보면 서양 사람들의 귀에는 'ㄱ, ㄷ, ㅂ'가 백 번이면 백 번

무성음 'k, t, p'로 들린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의 'k, t, p'는, 가령 영어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의 귀에는 백 번이면 백 번 'ㄱ, ㅌ, ㅍ'로 들린다. 우리 귀에는 차라리 그들의 'g, d, b'가 'ㄱ, ㄷ, ㅂ'에 가까이 들린다. 가령 'pop song'의 'pop'과 'Bob Dole'의 'Bob'을 비교해 보라. 'Bob'이 'pop'보다 '밥'에 훨씬 가깝게 들린다. 아니 'pop'이 '밥'으로 들릴 가능성이나 'Bob'이 '팝'으로 들릴 가능성이란 상상하기 어렵다. 'green'이나 'dream'도 '그린'과 '드림'으로 듣지, '크린' 및 '트림'으로 듣는 법이 없다.¹⁴⁾ 반면 'king'이나 'tent'를 '깁'이나 '텐드'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서 자연히 서양 사람과 우리의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기에서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저들은 우리의 '김(金)이나 '주(周, 朱)'가 각각 'Kim' 및 'Chu'로 들릴 것이며, 또 스스로 발음할 때에도 제대로 '김'과 '주'로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귀에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킴'과 '추'이지 결코 '김'과 '주'는 아니다. 여기서 만일 저들의 귀에 초점을 맞추면,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이

14) 영어의 유성자음 'g, d, b'는 'gum'을 '깁'으로, 'dam'을 '땨'으로, 'bus'를 '빠스'로 받아들이는 데서 보듯이 애초에는 'ㄱ, ㄷ, ㅂ'와 같은 평음으로부터는 경음, 즉 된소리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귀로도 '깁, 땨, 버스'보다 '깁, 땨, 빠스'가 자기들 원음에 가까운 음으로 들린다고 한다.(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빠스' 등을 '버스'로 고쳐 표기하는 정책에 의아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마디로 음성학적으로 보면 유성자음 이 우리의 평음보다 된소리에 가까운 것이다. 그런데도 '테이트'나 '그린'에서 보듯이 근래 새로 받아들이는 외래어에서는 평음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흥미롭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gum, bus, date' 등이 '킴, 퍼스, 테이트' 등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듯이 'king, tea, pass' 등이 '깁, 디, 배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일 것이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이 사실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 점에서 적어도 국어의 'ㄱ, ㅌ, ㅍ'에 'k, t, p'를 배당하는 것은 우리 현실을 바로 반영하는 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저들을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에 선다면 우리의 ‘ㄱ, ㄷ, ㅂ’ 및 ‘ㅈ’은 당연히 ‘k, t, p, ch’로 표기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로마자 표기법이 저들을 위해 만드는 것이긴 하나 그것을 되돌려 받는 것은 결국 우리인 만큼 ‘김’이 아닌 우리 고유의 발음 ‘김’에 더 가까운 소리를 유도해 낼 수 있는 표기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에 서면 당연히 ‘ㄱ, ㄷ, ㅂ, ㅈ’에 ‘g, d, b, j’를 배당하는 쪽을 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¹⁵⁾

다만 로마자 표기법이 우리말의 체계를 저들에게 바로 알려 주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보면 무성음 ‘ㄱ, ㄷ, ㅂ’에 유성음 ‘g, d, b’를 배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시각에서만 평가할 수 없는 사정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말에는 유성-무성의 대립보다 복잡한 ‘ㄱ-ㅋ-ㆁ’, ‘ㄷ-ㅌ-ㄴ’과 같은 세 갈래(평음-격음-경음)의 대립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무성음 안에서의 이 복잡한 대립을 로마자로 바로 드러내 주는 일은 매우 어려운데 그나마 ‘g, d, b’와 같은 유성음 글자를 이용하면 일이 한결 풀리는 면이 있다. 무엇보다 ‘ㅋ, ㅌ, ㅍ’에 ‘k, t, p’를 바로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15)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생긴 ‘김스클럽’(Kim’s Club)은 우리에게 흥미를 일으킨다. 로마자 표기법 때문에 우리의 ‘김’씨가 어느새 ‘킴’씨로 탈바꿈되어 있는, 아니 파괴되어 있는 현장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는 ‘ㄱ, ㄷ, ㅂ’에 어느쪽 로마자를 배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앞에서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뜻의 이야기를 하긴 하였다. 그러나 만일 피할 수 있는 마땅한 길이 있다면 굳이 참기만 할 일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떠오르는 생각 하나는 ‘미스터 킴’과 같은 영어화한 발음에 거부감을 느끼기 보다 그것에 오히려 매력을 느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마치 영어를 섞어 말할 때와 같은 우쭐거림을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킴스클럽’도 그래서 생긴 이름일지 모른다. 로마자 표기법을 영어 스펠링화하려는 현상과 아울러 우리 의식의 저변을 점검해 보는 일도 흥미롭지 않을까 한다.

사실 'k, t, p'는 국어의 'ㄱ, ㄷ, ㅂ'에 써도 좋고 'ㅋ, ㅌ, ㅍ'에 써도 좋고 'ㄱ, ㄷ, ㅂ'에 써도 좋은 글자다. 즉 우리의 '달'의 'ㄷ'뿐만 아니라 '탈'이나 '딸'의 'ㅌ'나 'ㄷ'도 저들은 백 번이면 백 번 다 't'로 듣는다. 따라서 우리는 'k, t, p'를 굳이 'ㄱ, ㄷ, ㅂ'에만 배당해야 할 까닭이 없다. 'ㅋ, ㅌ, ㅍ'에 이들을 배당할 명분도 마찬가지로 비중으로 있고, 거기다가 저들의 발음이 이 소리들에 가깝게 들린다는 이점까지 있다. 또 현실적으로 가령 '반포'를 'Panpo'로 적어 주며 'ㅂ'과 'ㅍ'의 발음을 구별하도록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데 반해서 'Banpo'로 적어 주면 자연스럽게 두 발음이 구별되는 이점도 있다. 이렇게 보면 'ㅋ, ㅌ, ㅍ'와 'k, t, p'의 짝짓기는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라 해야 할지 모른다.

한편 'ㄱ, ㄷ, ㅂ'와 'g, d, b'의 짝짓기는 'k, t, p'를 'ㅋ, ㅌ, ㅍ'에 빼앗기고 나서 취할 수 있는 차선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령 현행 로마자 표기법이나 머쿤 라이샤워 체계에서는 '다도'나 '바보'를 'tado' 및 'pabo'로 표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어중에서나마 기왕에도 'g, d, b'가 'ㄱ, ㄷ, ㅂ'의 표기에 안 쓰인 바 아니다. 어중에 쓰이던 것을 어두에까지 확대해 쓰는 일은, 다시 말하면 어중과 어두에서 구별해 쓰던 것을 어중의 형태 하나로 통일해 쓰는 일은 우리의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한 길이요, 매우 자연스러운 귀결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그것이다. 'tato'나 'papo'보다 'dado' 및 'babo'가 저들의 시각에서도 더 나뉘는 근거가 없다. 전자법을 대전제로 했을 때 'ㄱ, ㄷ, ㅂ'에 'g, d, b'를 배당하는 일의 타당한 근거는 찾으려 들면 이렇게저렇게 많이 찾아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¹⁶⁾

'ㄱ, ㄷ, ㅂ'와 'ㅋ, ㅌ, ㅍ'를 해결하고 나도 아직 'ㄱ, ㄷ, ㅂ'의 문제가 남는다. 'ㄱ, ㄷ, ㅂ'은 일찍이 초기 선교사들부터 'kk, tt, pp' 또는 'gg, dd, bb'와 같이

16) 결과적으로 같은 'ㄱ, ㄷ, ㅂ' 등이 'k/g, t/d, ch/j'로 갈려 표기되던 불편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이점도 있다.

우리 한글의 자형과 닮은 방식을 채택해 썼다. 자음 글자를 두 개 포갠다고 해서 된소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그런 방식이 서양에서 쓰이는 방식도 아닌데 어차피 된소리를 표기할 마땅한 수단이 없으니까 우리 한글을 만들 때의 아이디어를 빌린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오늘날까지 다른 표안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된소리 표기는 이제 이 방식으로 굳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ㅞ, ㅟ’ 등도 한편으로는 독일어 표기에서의 방식을 좇아 ‘ae, oe’쪽을 쓰기도 하나 그보다는 ‘ai, oi’쪽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역시 ‘ㅏ, ㅑ’에 ‘ㅣ’를 덧붙인 한글의 자형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로마자 표기법이 이처럼 한글의 영향을 받는 현상은 흥미로운데 우리가 로마자 표기법의 성격을 규명할 때 이 점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5

앞에서 암시하였지만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참으로 어려운 부분은 자음쪽 보다는 모음쪽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모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할 겨를을 가지지 못한다. 특히 ‘ㅣ’와 ‘ㅡ’의 문제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어느쪽으로 결정되어도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외국인들이 우리 로마자 표기법에 익숙해져서 그것들을 가까운 소리로 발음하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만 지적하는 것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마쳐야 하겠다.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어떤 표기법도 배우지도 않고 읽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읽지 못한다고 우리의 체계를 비판하려 들지 말고 그때 그때 참을성 있게 바로 읽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로마자 표기법이 겨우 관광객에게나 써 먹힐 가벼운 체계일 수는 없다는 인식을 바로 가져 주었으면 한다. 거창하게 주체성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로마자 표기법이 외국인을 위한 것이라 하여 우리말의 체계를 마구 무너뜨리면서까지, 한국어는 마

치 소리만 있고 뜻은 없는 언어이거나 한 것처럼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우리 한글 표기법이 지니고 있는 체계성이 로마자 표기법에도 바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말도 더 널리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연구원(1996), 국어의 로마자 표기 자료집.
- 김복문(1996), 한일 로마자 표기의 비교 연구, 무역출판사.
- 송기중(1996),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사용 실태 조사 연구, 문화체육부 용역 보고서.
- 유만근(1989), '우리말 로마자 맞춤법안 '89', 인문과학 19,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상익(1994), 국어 표기 4법 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익섭(1971), '문자의 기능과 표기법의 이상', 김형규 선생 송수 기념 논총.
- _____(1992), 국어 표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현복(1981),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말소리 3, 대한음성학회.
- Caplan, D. (1992), *Language: Structure, Processing, and Disorders*, The MIT Press.
- Chomsky, N. and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and Row.
- Crystal, D. (1992), *An Encyclopedic Dictionary of Language and Languages*, Oxford: Blackwell.
- Coulmas, F. (1989), *The Writing Systems of the World*, Oxford: Blackwell.

Martin, S. (1975), *A Reference Grammar of Japanese*, Yale University Press.

Pullum, G. K. and W. A. Ladusaw (1986/1996), *Phonetic Symbol Guid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Underhill, R. (1976), *Turkish Grammar*, The MIT Press.